

特殊圖書館에 있어서의 專門職司書의 役割

成 宅 慶

(國會圖書館 參考書誌課)

1. 序 言

제가 맡은 題目은 「特殊圖書館에 있어서의 專門職司書의 役割」이란 問題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本人에게 주어졌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中間에서 갑자기 맡겨진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며, 또한 元來 淺學한 鈍才가 되어 좀 더 着實하고 充實한 研究를 하여 發表하지 못하게 될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主로 一次文獻의 量的인 檢討와 二次文獻을 中心으로 극히 常識的인 이야기를 드리는 가운데 專門職司書의 할 일을 한번 찾아 보는 것으로 맡은 바 所任을 다퉈야 합니다. 아구조록 많은 寬容을 빕니다.

2. 特殊圖書館의 定義

干先 題目과 聯關하여 「特殊圖書館의 定義」를 밝혀 두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特殊圖書館」이라면 特殊한 生活環境에 있는 사람들을 對象으로 하는 圖書館, 卽 盲人圖書館이나 矯導所의 圖書館, 病院圖書館(患者를 위한) 등을 가리키는 누구나가 다 잘 아는 事實일 것입니다.

그런데 現在 本特殊圖書館大會는 上記한 特殊圖書館이 아니고 韓國의 各種圖書館 가운데 設置者別로 公共, 大學, 學校圖書館을 따로 分離하고 나머지 圖書館을 다 합쳐서 特殊圖書館이란 이름 아래 묶어 놓은 것이란 것을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軍圖書館, 銀行圖書館, 教育, 科學, 技術 分野의 各種圖書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故로 이 圖書館大會 때마다 여기에 모이시는 여러분이 다 함께 關心事가 될만한 題目을 選定한다는 것은 큰 難題中的 難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點에 대해 昨年의 第6回 圖書館大會 때도 國會圖書館의 崔周善先生님의 發表議題에서 이미 言及된 바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大會 뿐만 아니고 어떤 事業

을 協同해서 이룩하기 위해서도 그 圖書館의 性質에 따라 機能別의 모임이 要請된다는 點 거듭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맡은 題目中的 「特殊圖書館」이란 앞서 말씀드린 狹義의 特殊圖書館이 아니고, 獨逸에서 一般民衆圖書館과 이에 相對되는 學術圖書館 등 2種으로 分類하고 있듯이 廣義의 特殊圖書館, 다시 말하여 各主題別의 專門圖書館, 또는 研究圖書館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專門圖書館 또는 研究圖書館의 機能 내지 使命 가운데 圖書館의 一般的인 機能은 除外하고 다만 그 特別한 機能에 屬할 研究機能에 대한 奉仕에 있어서 專門職司書의 役割이 어떤 것인가 하는 點이 오늘 저에게 맡겨진 論題의 主目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故로 다음의 「研究」란 것에 대해 그 目的, 活動 등을 먼저 檢討하여 보는 것이 學術圖書館 또는 研究圖書館의 專門職司書의 役割을 追求하여 보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3. 研究의 目的

¹⁾研究의 目的이라 함은, 첫째로 學術上的 新知識을 開發하는 것, 둘째로 新製品의 開發과, 其他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學術上的 新知識이란, 人類福祉向上을 위하여 人類共通의 財産인 新知識을 開發하는 研究를 指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研究의 目標은 人類共通의 利益을 위한 것이 되므로 個人企業體에서의 研究와는 조금 性質이 다른 比較的 開放性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研究는 대체로 大學이나 公共機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두번째의 新製品의 開發이란, 大體로 各企業體에서의 研究인데 그 研究의 窮極的인 目標은 新製品의 開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企業競争에서 脫落을 免하기 위한 第一의 手段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註 1) 情報管理實務講座編輯委員會 編: 研究開發と 情報管理.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65年. pp 5-12 에서 參照

러한 研究에는 秘密이 要請될 때가 많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의 研究目的에 屬하지 않는 餘他の 目的의 研究도 勿論 있을 줄 압니다.

4. 研究活動

以上과 같은 研究目的에 따라 研究를 하는 사람들의 活動은 어떻게 해야만 目的에 到達할 수 있을 것인가? 즉 研究者의 研究 活動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未知의 것, 새로운 것을 追求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人間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만들지 못하였던 것을 創造하는 것입니다.

嚴密한 意味의 研究란 다른 사람이 發表해 놓은 것을 모르고 理論의 展開나 科學的實驗의 結果, 같은 結論에 到達하고, 같은 것을 創造했다라고 그것은 眞正한 意味의 研究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은 研究를 重複하는 徒勞를 한 데 지나

지 않을 것입니다.

故로 研究者는 이러한 徒勞를 免하기 위해, 또는 보다 새로운 것을 創造하기 위해 最少限 自己의 專門分野의 全世界의 文獻, 特許, 著名한 研究者, 著名한 研究機關이 發表한 것, 學會雜誌, 國內外 學會의 會議에서 發表한 것 등에 대해서는 最近 것에 이르기까지 항상 훑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平均水準 以上の 研究成果를 期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科學技術의 加速度的인 發達과 研究所, 研究員數의 增大에 의해, 또는 高度로 發達한 印刷文明으로 말미아마 그 生産되는 情報는 量이 너무도 엄청나서 이것을 어떤 個人이 다 훑어 보기란 到底히 不可能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 博士學位論文이 이미 發表된 外國論文의 再復寫란 년센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參考로 研究 規模의 한 예를 살펴 보겠습니다.

	從 事 員 數	研究從事員數	比 率	備 考
全産業 (25種)	4,063,090(人)	153,280(人)	3.8%	
電氣機械工業	449,527(〃)	50,354(〃)	11.2%	研究職 從事員數가 가장 많은 部門
食 品 工 業	130,878(〃)	8,605(〃)	6.6%	研究職 從事員數가 2位로 많은 部門
運輸·倉庫業	591,416(〃)	1,093(〃)	0.2%	研究職 從事員數가 가장 적은 部門
石 炭·鑛 業	172,405(〃)	653(〃)	0.4%	研究職 從事員數가 2位로 적은 部門

(日本 總理府統計局 科學技術調查報告, 1960年 抄錄)

5. 情報量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各其 分野別로 많은 人員數의 研究員들 손에 의해 엄청난 量의 研究成果는 各其 專門分野別의 圖書, 雜誌, 其他의 形態로서 洪水 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한 資料를 우리는 一次文獻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一次文獻의 種類로서는 Original 論文, 研究報告, 特許明細書, 데이터, 圖面, 寫眞, 필름 등을 大體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一次文獻의 그 量은 어느만큼 많은지 잠깐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全世界에서 科學技術文獻의 發表量 (1957年 現在)

	年間發表量	每年增加量
科學技術雜誌	약 55,000種	1,200~1,500種
刊行論文	약 1,200,000篇	30,000篇
刊行技術圖書	약 60,000種	6,000種
未刊研究報告書	약 100,000件	6,000件

(註: National Science Foundation Report)

앞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엄청난 量이 더욱 더 加速度的로 發展되어 現時點에서는 科學技術部門에서만 1年 間에 약 300萬篇의 論文²⁾이 發表된다고 推算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가 職場에서 만들고 있는 「國內刊行物記事索引」의 現況에서 우리 나라의 年間 論文發表量을 잠깐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人文·社會·自然·技術科學 全部 포함

1960年度	收錄學術雜誌種數 約 230種	論 文 約 10,000篇	※ 한 記入項目의 副出이 있어 正確한數가 못됨
1966 〃	〃 402 〃	〃 15,821 〃	

參照: 1960年度 學術雜誌索引(韓國圖書館協會編)
1966年度 國內刊行物記事索引(國會圖書館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만의 現況은 아직도 그 量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이만한 量도 어떠한 機關이나 個人으로서는 자기의 專門分野를 다 훑어 보기란 不可能할 줄 압니다.

註 2) 情報管理實務講座編輯委員會 編: 研究開發と情報管理.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65年. p. 78.

그리고 韓國圖書館協會編 學術雜誌索引이나 現在 제 가 맡고 있는 國會圖書館編「國內刊行物記事索引」이 우리 나라의 全體學術雜誌를 完全히 網羅하고 있지 못하고 그 중에는 間或 漏落된 學術雜誌가 있다는 點을 밝히면서, 이러한 索引에 學術雜誌의 論文이 漏落됨으로써 우리 圖書館의 專門職들에게는 直接的으로 그 奉仕手段을 鈍化시키는 結果가 招來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勤務하는 機關이나 所屬處에서 刊行하는 刊行物이 있으면 빠짐없도록 協助를 바라면서 主題와는 相關 없는 付託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添加하여 文獻量으로 人類知識의 成長量에 대한 좋은 例가 있어 다음에 參考로 例示합니다.

人類的 洞窟生活에서

→1750년까지의 人類知識을 1單位

1751年—1900年	〃	〃	2〃
1901年—1950年	〃	〃	4〃
1951年—1960年	〃	〃	8〃
1961年—1968年	〃	〃	16〃

參照 : Wernher Von. Brawn: Libraries and the Space Age. ALA Bulletin, June, 1962. p.525

各分野別로 差異는 있지만 現在 이 時點에서는 7年마다 人類知識이 倍加해 간다고 推算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推算을 뒷받침 할만한, 아니 어떤 分野에서는 보다 훨씬 더 많은 量으로 膨脹되고 있는 實例를 다음에 例示합니다.

美國 議會圖書館의 航空分野圖書增加量

1926年	약 1,800책	1942年	약 19,000책
1930年	약 3,200책	1944年	약 35,000책
1934年	약 6,000책	1948年	약 60,000책
1938年	약 10,000책		

參照 : Louis N. Ridenour: Bibliography in a Age of Science.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52. p.14의 表에서 推算

6. 情報調査

前章에서 본 바와 같이 天文學의 膨脹되어 가는 一次資料, 즉 情報源 가운데서 必要한 情報를 入手, 蓄積하였다가 어떤 研究者에게 迅速하게 提供해야 하는 것이 바로 專門職司書의 役割이고 또한 使命일 줄 압니다.

參考로 이 情報調査가 研究에 있어서 얼마만한 比重

을 차지하는가에 대해 美國國立科學財團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實施한^{3),4)} 文獻情報調査時間에 대한 發表를 引用해 보면 美國의 化學工學의 한 研究者가 자기의 研究에 所要된 全時間이—

① 資料入手에 50.9%

② 資料整理(體系化) 및 計劃에 17%

③ 研究 및 實驗에 32.1%가 된다고 報告하고 있습니다.

美國과 같이 圖書館이 發達되고, 一次資料를 案内하여 주는 各種 二次文獻이 高度로 發達된 나라에서도 이러한 形편인데, 圖書館이 發達되지도 못하고 또 二次文獻이 다 具備되지 못한 環境下에서 研究를 하는 사람들의 究研에 있어서 情報入手의 苦衷은 잘 알고도 남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處地에 놓인 研究者들로 하여금 그의 研究時間을 可能한 限 많이 研究에 集中할 수 있도록 專門職司書들이 情報를 調査奉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情報의 調査奉仕를 그 業務性質上 一般的인 調査奉仕와 專門的인 調査奉仕 등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⁵⁾

一般的 調査奉仕란 調査員의 專門的인 知識이 그렇게 必要로 하지 않고 圖書館의 參考奉仕業務 즉, 핸드북, 辭典, 便覽, 人名錄 등등의 參考圖書를 利用한 回答이나 情報를 提供하는 業務程度입니다. 이러한 業務는 그 研究主題分野에 대한 基本的인 參考資料나 익히고 若干의 經驗만 있으면 遂行할 수 있는 業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一般的인 調査業務의 遂行에 있어서도 外國語의 理解力, 情報의 理解力面에서 大學을 卒業한 사람이라야만 大體로 可能할 줄 압니다.

專門的 調査奉仕란 研究主題에 대한 知識을 가지고 情報를 調査分析하여 二次文獻를 作成하고, 情報蓄積, 또 이의 檢索에도 知識을 가져야 하는 바로 情報專門家의 奉仕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專門的인 調査奉仕는 研究主題 分野에 대한 書誌에 대해서 넓은 識見을 가지고 또 情報處理에 대한 特殊教育 즉, 「도큐멘털리스트」 教育을 받은 사람이라야만 可能할 것입니다. 그래서 伊太利에서는 司書가 되려면 博士學位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妥當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專門的인 奉仕를 위해서는 大學에서 專攻科目을 履修하고, 大學院課程에서 圖書館學을 修學한 碩士라든 自己가 專攻한 主題分野의 專門圖書館의 司書로서 理想的인 일 줄로 생각

註 3) 上掲書 78 p.

註 4) 韓國圖書館協會編, 學術雜誌索引 1960. 서울 1963年 2 p.

註 5) 情報管理實務講座編輯委員會 編 : 前掲書 p.79.

됩니다.

그리고 現在 우리 나라의 圖書館學教育을 맡은 大學當局에게도 「도큐멘테이션」教育面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힘써야 할 줄로 생각되며, 이미 專門圖書館에 勤務하는 職員 혹은 이 分野에 從事하는 사람들을 위한 教育對策도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할 줄 압니다.

以上の 情報라든가, 「도큐멘테이션」教育 등은 어디까지나 主로 科學(純粹·應用)分野의 이야기이고 人文·社會科學分野에서는 그 學問의 性質上 勿論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神經을 써야 하지만 邇及的 研究에 利用될 資料가 重視되기 때문에 이 「도큐멘테이션」手段의 技術面에서는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點은 周知하는 바입니다.

7. 情報處理技術

科學·技術分野에서는 이렇듯 많은 量의 情報를 從前의 圖書館에서의 手續節次에 의한 整理方法으로는 도저히 滿足할만한 奉仕가 不可能할 줄 압니다. 그래서 各種 電子計算機가 登場하여 圖書館業務의 機械化가 外國에서는 尙尙 盛行하고, 機械의 힘을 빌려 自動抄錄法이니 自動索引法 등이 施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情報의 處理技術은 사람의 손에 의하든지 機械에 의하든지 그 處理되는 方式을 살펴보면 大體로 다음과 같이 區分할 수가 있습니다.⁶⁾

1) 分類的方法 (體系的方法)

- (a) D.D.C. (b) U.D.C. (c) 專門分類法(例: American Society for Metals=略해서 A.S.M.)

2) 索引法

- (a) 主題名索引法

- (b) Key Word 索引法 { SDI System
KWIC System
KWOC System

- (c) 複合單語索引法 { Uniterm System
Facet 혹은 Categorie加味索引法

以上の 方式으로 處理된 情報가 檢索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機械화된 情報의 蓄積 및 檢索方法에 대해서 本人도 文獻을 통해 읽어 보기는 했으나 理解가 안되고 아는 바가 없어 詳細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圖書館業務의 機械化問題를 彼岸의 話題인냥 들어 왔으나 우리의 處地도 그렇지 못하다는 點

을 覺醒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엇그게 紙上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某製藥會社에서 電子計算機를 設備하였다는 報導를 보았고 또 事務機械化展示會가 開催되는 등 우리의 門前에 닦아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토메이션」이란 사람의 손이 모자라서, 人件費가 비싸서 要請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不可能한 일을 機械가 해낼 수 있는 點에서 더욱 많이 要請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8. 二次文獻

前章에서 잠깐 言及한 바와 같이 二次文獻이란 一次文獻을 檢索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一次文獻에 加工하여 作成한 文獻을 指稱하는 말입니다.

이 二次文獻의 種類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수 있겠습니다.⁷⁾

- (1) 一次資料의 存在와 그 所在를 指示하여 주는 것

- (a) 情報를 包含한 資料形態를 單位로 하여 그 存在 및 所在를 指示하는 것

例: 各種文獻目錄, 雜誌 리스트, 綜合目錄 등

- (b) 바로 情報自體를 單位로 하여 그 存在, 所在를 指示하는 것

例: 目次縮刷 (Contents Sheet), 雜誌記事索引

- (2) 一次資料가 傳達하는 情報內容을 알려주는 것

- (a) 다만 情報內容에 대한 指示만 하여 주는 것

例: 指示的抄錄誌 (Indicative Abstracts)

- (b) 情報內容을 客觀的으로 壓縮해서 알려주는 것

例: 報知的抄錄誌 (Informative Abstracts)

- (c) 情報內容을 알려주는 同時에 第三者의 評價를 加한 것

例: 批評的抄錄誌 (Critical Abstracts)

- (d) 1種 以上の 一次資料에 포함된 情報內容을

第三者가 어떤 觀點에서 再編成한 것

例: 總覽, 事典, 便覽, 年次報告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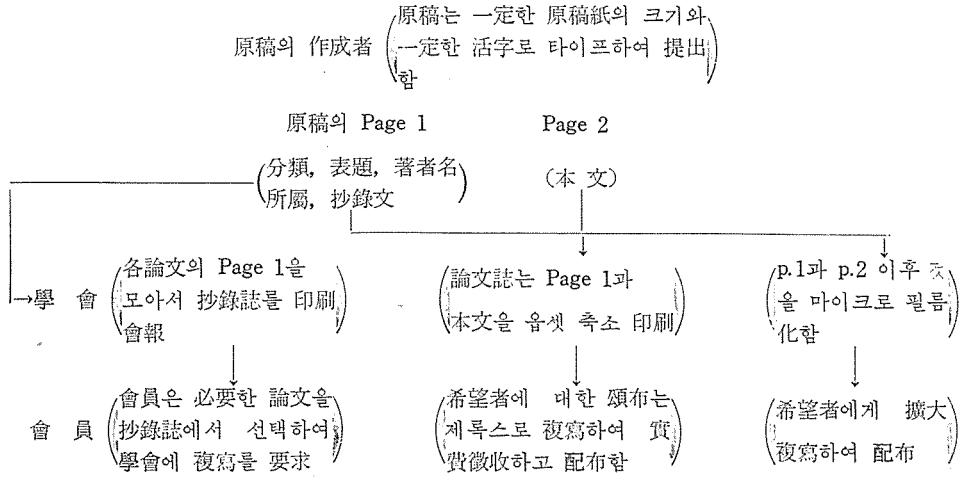
以上과 같은 二次文獻의 重要性은 文獻量의 增加에 따라 더욱더 그 比重이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즉, 二次文獻이 오히려 研究者에게 一次到着文獻이 되고 原論文은 研究者의 要請에 의해 二次到着文獻이 되는 경우까지를 構想할 수 있습니다.⁸⁾

6) 情報管理實務講座編輯委員會 編: 情報檢索.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65. p.151

7) 情報管理便覽編輯委員會 編: 情報管理便覽.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63. pp. 282~283.

8) 平山健三: 著者抄錄; 文部省主催 第7回 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 講習會テキスト. 東京, 東京電機大學出版局, 1968. pp.25~27



위의 圖表와 같은 類似한 過程을 위한 形態의 雜誌라고 看做할 수 있는 雜誌가 두 가지 있다. 즉 美國의 Chemical Abstracts가 20個 專門誌의 過去의 것을 마이크로필름화하였고, 역시 美國의 Communications in Behavioral Biology (1968年 1月부터 創刊)가 論文마다 루우슬리프 形式으로 되어 있으며, 別途로 색인이 붙은 핸드 소오트 펀치 카이드가 每論文에 붙어 있다고 한다.

開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部門에 政府는 큰 關心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야 하고 圖書館學을 教育하는 機關에서도 注力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날로 加速度로 발전해 가는 先進國의 새 지식을 받아들려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함은 經濟開發 5 個年計劃보다는 더 先決問題라고 의치고 싶습니다. 그래야 施行錯誤가 없고 目標 있는 航海가 될 것입니다. 지루한 時間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結 論

文獻量의 增大와 日就月長하는 科學文明은 우리의 圖書館業務를 從前의 方法대로 그냥 容納하지 않는다는 點을 結論으로서 強調하고 싶습니다.

즉, 圖書의 分類나 目錄으로서, 혹은 몇 가지 參考資料의 奉仕로써는 도저히 專門職司書의 任務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點입니다.

그리고 施設面에 있어서도 圖書와 그 많은 量의 各種 定期刊行物을 製本해서 차곡차곡 書庫에 配列해 나갈 수 없다는 點을 想像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故로 이를 위해서 그 分量面에서 10分之 1혹은 20分之 1로 縮少할 수 있는 마이크로필름화하고 增大하는 情報는 電子計算器, 컴퓨터에 依存處理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最近에 와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이 部門에 若干의 覺醒은 있어, 國會圖書館에서는 機構를 改編하여 參考書誌課가 생겼고,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에도 研究調查課가 생겼으며, 몇해 前에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가 생겨서 基礎的인 業務는 조금씩 着手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微溫的인 對策으로는 안 될 줄 압니다. 日本만 하더라도 文部省內에 情報圖書館課가 있어서 1968年 봄에 이미 第7回의 文獻情報講習會가

〈參考文獻〉

- ① 國會圖書館報 2卷 1號 (1965年 1月號), 5卷 4號 (1968年 4月號)
- ② 도협월보, 9卷 3號 (1965年 4月號)
- ③ Ridenour, Louis N. and Others. Bibliography in an Age of Science. Urbana, Univ. of Ill. Press, 1952.
- ④ 情報管理實務講座編輯委員會 編: 情報管理實務講座 7; 研究開發と 情報管理.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65.
- ⑤ 情報管理實務講座編輯委員會 編: 情報管理實務講座 5; 情報檢索.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65.
- ⑥ 情報管理實務講座編輯委員會 編: 情報管理實務講座 4; 參考資料의 利用と 作成法.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66.
- ⑦ 文部省 大學學術局情報圖書館課 編: 文部省主催 第7回 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 講習會 テキスト. 東京, 東京電氣大學出版局, 1968.
- ⑧ 文部省 大學學術局 編: 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ハンドブック(文獻情報便覽) 東京, 東京電氣大學出版局, 1967.
- ⑨ 情報管理便覽編輯委員會 編: 情報管理便覽.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63.